

주간 통일정세

2016-49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23	北 김정은, 태국 새 국왕 외치랄롱꼰에 축전(연합뉴스)
		美쿠바 방문 北 최룡해 “양국 친선관계 공고발전”(연합뉴스)
	124	김정은, 한 달 새 9차례 軍행보...리설주와 전투비행술대회 참관(연합뉴스)
		아사히 “北김정은, 5월 당대회때 간부 100여명에 스위스 시계”(연합뉴스)
	125	통일부, 리설주 출산설에 “공식 확인할만한 것 아직 없다”(연합뉴스)
		北 체육상 리중무에서 김일국으로 교체(연합뉴스)
	126	北, 김일성대 1기생 모티브 영화 ‘졸업증 띄우기(연합뉴스)
		北매체, ‘200일 전투’ 종료 앞두고 성과 선전(연합뉴스)
	127	北 김정은, 신축 강원도 소년단야영소 시찰(연합뉴스)
		北매체 “함경북도 수해복구 전화위복 승리”(연합뉴스)
128	北최선희 “트럼프 대북정책 나오기전 관계 해치는 행동 안해”(연합뉴스)	
	“조선총련 의장, ‘日 조선대생은 김정은의 전사”(연합뉴스)	
129	北 농근맹 대회 34년 만에 개최...김정은, 참가자들에 서한(연합뉴스)	
	北 김정은, 원산구두공장 방문...“지나다가 들렀다”(연합뉴스)	
경제	125	北 노동신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임명 확인(연합뉴스)
		北 김정은, 원산구두공장 방문...“지나다가 들렀다”(연합뉴스)
	126	이집트 오라스콤, 北 자회사 오라뱅크 폐쇄키로...“美제재 때문”(연합뉴스)
127	中매체 “유엔 대북제재로 단둥 호시무역구 직격탄”(연합뉴스)	
	中, 대북제재 결의 앞서 北석탄 통관강화...적발·퇴짜 잇따라(연합뉴스)	
	“北, 휴대전화 사업자 고려링크 3분기 실적호조”(연합뉴스)	
사회 문화	125	“北 수해여파로 철도대란...일반인 열차이용 내년 2월까지 금지”(연합뉴스)
	126	北, 수해지역 부실공사 소문 차단위해 출입통제(연합뉴스)
	127	“나선시, 북한서 재배 합법인 대마초 해외반출 창구”(연합뉴스)
		“북한인, 러 극동서 방탄복 제작용 특수 실 밀반출하려다 적발”(연합뉴스)
		“北, 평남 은산에 김정은 8번째 전용 활주로 건설 중”(연합뉴스)
129	통일연구원 “北 전역서 시장 404개 운영·110만명 종사”(연합뉴스)	
외교 국방	123	“북한서 철도 교통난으로 목탄차 재등장”(연합뉴스)
		“고려항공, 새 국제선항공권 판매소 평양에 개소”(연합뉴스)
123	美재무부, 고려항공 포함 단체 16개·개인 7명 등 23곳 독자제재(연합뉴스)	

	北, 평양 주재 외교사절에 '안보리 제재' 입장 설명(연합뉴스)
124	“中, 北 김정은 정권 붕괴 대비 난민시설 확보 본격화한 듯”(연합뉴스) 北, '안보리 대북제재' 지지 유럽국가 비난(연합뉴스)
125	美, 북한 핵대응책 등 담은 새 비밀군사전략보고서 마무리 단계(연합뉴스) 北 “제재 실패는 숙명…美 전략적 선택 바꿔야”(연합뉴스)
126	조셉 윤, 대북압박 기조 지속해야…중대협상은 6자회담 통해(연합뉴스) 日제출 핵무기 폐기결의안 23년 연속 유엔서 채택돼(연합뉴스) 美8군사령관 “북한, 30~60일내 추가도발 가능성”(연합뉴스)
127	北 “美 대북정책 총파산을 인권공세로 만회하려 발악”(연합뉴스) 美 국방 “북한위협 심각…美해군 높은 작전속도 유지하겠다”(연합뉴스) “美하원, 대북 추가제재·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법안 가결”(연합뉴스)
128	주일 美해군기지 사령관 “北핵위협 확대…항상 경계”(연합뉴스) 中 “안보리 결의 철저히행…각국 독자제재는 수용불가”(연합뉴스)
129	“北, 핵미사일 발사능력 갖춰…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미완성”(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12. 3.

■ 北 김정은, 태국 새 국왕 와치랄롱꼰에 축전(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일 마하 와치랄롱꼰 태국 신임 국왕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김정은 위원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하리라고 확신한다”며 “나라의 안전과 부강번영을 위한 고귀한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앞서 지난 10월 서거한 푸미폰 아둔야뎃 전 국왕의 유일한 아들인 와치랄롱꼰 국왕은 지난 1일(현지시각) 234년의 역사를 가진 짜끄리 왕조의 10번째 왕(라마 10세)이 됨.

2016. 12. 4.

■ 김정은, 한 달 새 9차례 軍행보…리설주와 전투비행술대회 참관(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한 달 사이 9차례나 군(軍) 관련 행보에 나서면서 대남 위협의 수위도 높이고 있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구체적인 대회 개최 날짜는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은이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우리의 공군) 비행 지휘성원(지휘관)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 2016’을 참관했다고 4일 보도함.
- 김정은의 대회 참관에는 부인 리설주도 동행했으며, 리설주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3월 28일 김정은을 따라 평양 보통강변에 새로 건설된 미래상점을 방문한 이후 9개월 만임.

■ 아사히 “北김정은, 5월 당대회때 간부 100여명에 스위스 시계”(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5월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대회에서 고위간부들에게 스위스제 손목시계를 줬다고 아사히신문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4일 전함.

- 아사히는 시계 사진과 함께 게재한 서울발 기사에서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에 유엔과 한미일이 엄격하게 제재를 부과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이를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스위스계 시계는 대회 참가자 3천600여 명 중 당 중앙위원급과 군사령관 등 100명 정도에 돌아갔다”고 보도함.
- 신문은 시계 중간 윗부분에 노동당을 상징하는 붓과 망치, 낫 마크가 붙어있으며 그 아래 보이는 “북두칠성은 제7회 대회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전함.

2016. 12. 7.

■ **北 김정은, 신축 강원도 소년단야영소 시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축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김 위원장은 “강원도 안의 일군(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힘을 믿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로 뚫고 나가면서 소년단야영소를 훌륭히 개건했다”면서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강원도 인민들이 발휘한 자력자강의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말함.
- 문천시의 12월6일 소년단야영소는 강원도 학생들이 야영하는 곳으로, 연건평 1만5천530여㎡에 달하며 야영각과 식당, 해수욕장, 회관, 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롤러스케이트장 등을 갖췄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2016. 12. 9.

■ **北 김정은, 원산구두공장 방문…“지나다가 들렀다”(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강원도 원산구두공장을 네 번째로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조용원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김정은과 동행했으며, 박정남 강원도 당위원장과 공장 일꾼들이 이들을 맞았다고 전함.
- 통신은 김정은이 지난해 11월 이 공장을 찾은 데 이어 이번이 네 번째 방문이라고 설명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12. 3.

■ **美쿠바 방문 北 최룡해 “양국 친선관계 공고발전”(연합뉴스)**

- 쿠바를 방문 중인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는 변함없이 공고발전되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조문차 아바나를 방문한 최 부위원장은 쿠바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피델 카스트로(카스트로) 루쓰(루스) 동지와 함께 마련하여 주신 조선과 쿠바(쿠바)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존경하는 라울 카스트로 루쓰 동지의 깊은 관심 속에 변함없이 공고발전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최 부위원장은 카스트로 전 의장 사망 이후 북한에서 이뤄진 애도 기간 선포와 추모행렬 등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조선과 쿠바 두 나라 사이의 형제적이며 전투적인 친선관계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고 강조함.

2016. 12. 5.

■ **통일부, 리설주 출산설에 “공식 확인할만한 것 아직 없다”(연합뉴스)**

- 통일부는 5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27)가 9개월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하면서 출산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리설주에 대해 여러 추측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할만한 것은 아직 없다”고 밝힘.
- 정준희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리설주가 최근 북한 공군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김정은과 함께 참관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 “리설주는 2014년에도 비슷한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함.
- 정 대변인은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에 대해 “3월에 나온(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보다 훨씬 더 빈 구멍을 메우는 효과가 있다”며 “여러 가지 한계라고 말씀드릴 건 있겠지만, 일단은 유엔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평가함.

■ **北 체육상 리종무에서 김일국으로 교체(연합뉴스)**

- 북한이 내각 체육상(장관급)을 리종무에서 김일국으로 교체한 사실이 5일 확인됨.
- 북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이날 김정은의 조모 김정숙의 생일(12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한 ‘오산덕상(賞)’ 체육경기대회 개막 소식을 전하면서 “김일국 체육상이 개막사를 했다”고 소개함.

- 북한 관영 매체가 지난 10월 26일 열린 17세 이하(U-17) 여자축구 월드컵 우승 연회에 ‘리종무 체육상’이 참석했다고 보도한 만큼 최근 한달여 사이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임.

2016. 12. 8.

■ 北최선희 “트럼프 대북정책 나오기전 관계 해치는 행동 안해”(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제네바 북미 접촉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는 북미관계를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8일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뤄진 북미 접촉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주 국장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북한인들도 많은 미국인 못지않게 놀랐다"고 말했다면서 당시 접촉에서 나왔던 발언을 상세히 전함.
- 이 방송은 입수한 북미 접촉 문서를 근거로 당시 최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를 기다리면서 지켜볼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는 미·북관계 개선 혹은 협상 가능성의 문을 닫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힘.

■ “조선총련 의장, ‘日 조선대생은 김정은의 전사’”(연합뉴스)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허종만 의장이 최근 조선총련 계열 조선대학교(도쿄 소재) 학생들에게 “조선대생은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전투하는 전사”라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8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이런 발언은 지난 8월 ‘재일본조선청년동맹(조청)’ 대표단이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면담한 내용을 소개하는 설명회 자리에서 나옴.
- 조청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내건 일본내 조직이며, 조선대학 재학생은 의무 가입 대상으로, 현재 회원은 1만명 가량으로 알려짐.

2016. 12. 9.

■ 北 노동신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임명 확인(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사업을 담당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에 리선권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총회가 전날 평양에서 진행된 사실을 전하면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박명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전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하였다”고 밝혔다.
- 군 출신이면서 남북 협상 경험이 많은 대남통으로 꼽히는 그는 대남총책임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오른팔로 알려짐.

다. 공식행사

2016. 12. 8.

■ 北 농근맹 대회 34년 만에 개최…김정은, 참가자들에 서한(연합뉴스)

- 북한 농민을 대표하는 사회단체 조직인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제8차 대회가 지난 6~7일 평양에서 개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농근맹 대회가 열린 것은 1982년 12월 이후 34년 만임.
- 중앙통신은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7차 대회 이후 농근맹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총화(결산)하고, 당의 믿음직한 외곽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였다”고 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12. 6.

■ 北, 김일성대 1기생 모티브 영화 ‘졸업증’ 띄우기(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창립 70년을 맞은 김일성종합대의 1기 졸업생을 모티브로 한 영화 ‘졸업증’ 띄우기에 나섬.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최근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만든 예술영화 ‘졸업증’이 각 계층 관중들, 특히 청년대학생들 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영화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70돌을 맞으며 전쟁 노병인 김일성종합대학의 여성 교육자가 자기 한생(일생)을 돌아켜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며 “영화를 통해 천만 군민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새기게 되고, 혁명적 신념과 도덕적 의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다”고 찬사를 보냄.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12. 6.

■ 北매체, '200일 전투' 종료 앞두고 성과 선전(연합뉴스)

- 북한 매체들이 속도전 사업인 '200일 전투' 종료를 열흘여 앞두고 부문별 성과를 선전하면서 '유종의 미'를 위한 독려에 나섬.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위대한 장군님의 염원대로 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이 땅 우(위)에 인민의 낙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자'라는 제목의 1면 톱기사에서 목표를 달성한 기관들을 나열함.
- 신문은 특히 연합기업소 아래 80여 개 채탄중대와 굴진(掘進)소대들이 지난 5일 현재 목표를 넘어섰으며, 금성트랙터공장과 성진내화물공장도 지난달 말까지 목표를 초과 완수했다고 전함.

2016. 12. 7.

■ 北매체 "함경북도 수해복구 전화위복 승리"(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8월 말 함경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의 복구 작업이 '기적적 승리'를 거뒀다고 관영매체를 통해 7일 발표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함북도 북부피해복구 전선에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쟁취한 데 대한 상보'를 발표했다고 밝힘.
- 상보는 "전 인민적 대진군의 장엄한 승전포성이 200일 전투의 주 타격 방향인 함북도 북부피해복구 전선에서 높이 울려 퍼져 온 나라를 끝없는 환희로 격동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12. 5.

■ 이집트 오라스콤, 北 자회사 오라뱅크 폐쇄키로…“美제재 때문”(연합뉴스)

-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이 북한 내 금융 자회사인 오라뱅크(Orabank)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이집트 일간 데일리뉴스이집트가 5일 보도함.
- 이집트 통신 재벌 나기브 사위리스가 소유한 오라스콤 텔레콤 미디어&테크놀러지(OTMT)는 전날 성명을 내고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로 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힘.
-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내놓은 이후 첫 이행 사례로서 발표된 것으로 보임.

■ 中매체 “유엔 대북제재로 단둥 호시무역구 직격탄”(연합뉴스)

- 북중 민간무역 활성화를 위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개설된 ‘조중변민 호시무역구’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의 직격탄을 받음.
- 작년 10월 중순 개장된 단둥 호시무역구는 올해 4월부터 북한업체 50여개가 무역구에 들어오기로 했으나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으로 표류하고 있음.
-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5일 ‘(북중)접경에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핵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14개월째 표류하는 호시무역구의 실상을 보도함.

2016. 12. 6.

■ 中, 대북제재 결의 앞서 北석탄 통관강화…적발·퇴짜 잇따라(연합뉴스)

-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기 직전 북한산 석탄에 대해 통관 검사를 대폭 강화한 정황이 포착됨.
- 북한산 석탄의 품질과 적재중량 등에 대해 검사를 강화해 잇따라 ‘퇴짜’를 놓는가 하면 중앙정부의 책임자가 직접 북·중 최대교역 거점인 단둥(丹東)항을 찾아 긴급점검에 나선 사실도 확인됨.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11월 30일) 직전에 이뤄진 쑨 사장의 현장방문은 석탄 제한에 초점을 둔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준비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음.

2016. 12. 7.

■ **“北, 휴대전화 사업자 고려링크 3분기 실적호조”(연합뉴스)**

-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이 북한 내 금융 자회사 오라뱅크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북한과 합작한 휴대폰 사업에서는 최근 호조를 보였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회계법인 보고서를 인용해 7일 보도함.
- 회계법인 딜로이트가 발표한 오라스콤의 3분기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오라스콤과 북한 체신성이 공동 출자한 북한 내 이동통신사업자 ‘고려링크’는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순자산이 4억9천만 달러(5천740억원)를 기록해 지난해 말보다 32% 증가했다고 방송은 전함.
- 딜로이트는 같은 기간 비용과 세금을 제한 이익이 6천400만 달러(749억 원)에 달한다며 “2분기 누적 세후 이익보다 약 50% 증가한 수치”라고 덧붙임.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12. 5.

■ **“北 수해여파로 철도대란…일반인 열차이용 내년 2월까지 금지”(연합뉴스)**

- 함경도 수해 여파로 북한 철도 교통에 큰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의 열차 이용이 잠정 금지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내각 철도성에서 농업근로자동맹 제8차 대회에 참가할 성원(관계자)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일반인의 탑승을 일시 중단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전력사정이 나아지는 내년 2월까지 일반인 탑승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함.
- 이 소식통은 “그동안 철도총국은 모든 열차를 수해를 복구하는데 동원했다”며 “일반인들의 열차 이용은 수해복구가 시작된 이후부터 거의 불가능했다”고 전함.

2016. 12. 6.

■ **北, 수해지역 부실공사 소문 차단위해 출입통제(연합뉴스)**

- 함경북도 수해지역에 완공된 주택의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북한 당국이 부실공사 소문 차단을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6일 보도함.
- 함경북도 소식통은 5일 매체와의 통화에서 “함경북도 수해지역에는 외부 인원이 들어갈 수 없고 친척 방문을 목적으로 한 증명서 발급도 차단된 상황”이라면서 “전국에서 보내온 지원물자를 실은 화물차들도 새집이 들어선 지역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짐을 내려놓고 있다”고 말함.
- 주민들 사이에서는 “살림집 건설을 언제까지 무조건 끝내라는 위(김정은)의 지시가 부실공사를 이어진 것 아니냐”면서 “집은 속도전으로 (건설)해놓고 먹는 문제는 왜 감감무소식이냐”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나. 시장관련

2016. 12. 9.

■ **통일연구원 “北 전역서 시장 404개 운영·110만명 종사”(연합뉴스)**

- 북한에서 당국의 공식 허가를 받은 시장이 404개 운영되고 있고, 상인과 관리자 등 관련 종사자가 110만 명에 가깝다는 국내 연구진의 분석이 나옴.
- 통일연구원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연구원 청사에서 ‘북한 전국 공식시장 현황과 사회변화’를 주제로 여는 학술회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지역별로는 평안남도(65개)에 가장 많았고, 평안북도 51개, 함경남도 48개, 함경북도 46개, 황해남·북도 각 34개, 강원도 29개, 자강도 24개, 양강도 18개 순이었다. 이밖에 평양시 30개, 남포특별시 21개, 나선특별시 4개로 집계됨.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6. 12. 7.

■ **“나선시, 북한서 재배 합법인 대마초 해외반출 창구”(연합뉴스)**

- 나선특별시가 북한을 드나드는 중국인 등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대마초를 파는 창구로 전략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RFA는 “나선시 주민들이 올해 관광이나 사업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중국인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마약류인 대마초를 팔고 있다”면서 “대마초 재배는 북한에서 합법화돼 있어 주민들이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되고 있다”고 밝힘.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나선시 사람들이 올해 마른 ‘역삼’(대마초) 꼬투리를 kg당 30위안(약 5천원)씩 주고 대량으로 거둬들였다”며 “이렇게 거둬들인 역삼 꼬투리는 중국인들에게 kg당 500위안(약 8만5천원)에 팔리고 있다”고 말함.

■ **“북한인, 러 극동서 방탄복 제작용 특수 실 밀반출하려다 적발”(연합뉴스)**

- 북한인들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방탄복을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는 특수 실을 자국으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됐다고 현지 세관이 7일(현지시간) 밝힘.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세관 공보실은 “북한인들이 방탄복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아라미드 섬유실을 북한행 항공기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설명함.
- 압수된 아라미드 섬유실은 2상자 40kg 분량으로 알려짐.

■ **“北, 평남 은산에 김정은 8번째 전용 활주로 건설 중”(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8번째 전용활주로를 평안남도 은산군에 건설 중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함.
- 북한 위성사진 전문가인 커티스 멜빈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RFA에 출연해 “평안남도 은산군에 약 870m 길이로 활주로를 건설 중”이라며 “인근에 순천 시멘트공장과 탄광 등이 있고, 새로운 산업단지도 조성 중이어서 산업시찰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 이어 “새로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는 어떤 공장과 기업소가 들어설지 알 수 없지만, 위성사진만으로도 대규모 단지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임.

2016. 12. 9.

■ **“북한서 철도 교통난으로 목탄차 재등장”(연합뉴스)**

- 함경북도 수해 여파로 철도교통에 큰 차질이 빚어진 북한에서 목탄차가 다시

- 등장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청진시 수남구역과 포항구역이 인접한 항공대학 앞에는 목탄차들이 줄지어 정차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청진에서 뛰고(운행되고) 있는 목탄차는 조선(북한)에서 생산한 '승리58'과 중국산 '해방호'가 있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목탄 통에서 연기가 심하게 나고 연유(휘발유) 차보다 느리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차서비료(차비)가 녹기(싸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함.

■ **“고려항공, 새 국제선항공권 판매소 평양에 개소”(연합뉴스)**

- 북한 국적기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는 새 사무소를 평양에 개소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 NK뉴스가 9일 보도함.
- NK뉴스는 자사가 입수한 사진에 나오는 안내문에 “고려항공 사무부서는 국제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국제선 비행기 표를 예약할 수 있는 새로운 사무실을 평양에 개설한다”고 나와 있다고 전함.
- 이는 고려항공이 이달 초 미국 재무부와 한국 정부로부터 독자 제재를 받은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 주목된다고 NK뉴스는 덧붙임.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12. 3.

■ **美재무부, 고려항공 포함 단체 16개-개인 7명 등 23곳 독자제재(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고려항공을 비롯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6개와 개인 7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함.
-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와 13687호, 13722호 등에 근거해 이들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림.
-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이들 간의 거래가 금지됨.

2016. 12. 5.

■ **美, 북한 핵대응책 등 담은 새 비밀군사전략보고서 마무리 단계(연합뉴스)**

-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대응 등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할 대응책을 담은 새로운 비밀군사전략 보고서 최종본 작성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CNN 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함.
- CNN은 데이비드 골드파인 미 공군 참모총장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제출될 이 보고서는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의 주도로 지난 몇 개월 동안 마련됐다면, 이에선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이슬람국가'(IS)를 포함한 극단주의 무장세력 등 5대 위협에 집중한 상세 설명을 부록으로 담고 있다고 전함.
- 골드파인 총장은 캘리포니아주 시미 벨리에서 개최된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계획과 관련해 미국 내에서 우려가 늘고 있다는 질문에 "보고서 최종본 작업은 거의 마무리 수준"이라며 "대통령 당선인이 볼 수 있도록 제출될 전략 보고서에는 북한 관련 추가 항목도 포함돼 있다"고 밝힘.

■ **北 "제재 실패는 숙명...美, 전략적 선택 바꿔야"(연합뉴스)**

- 북한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근 채택된 새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해 "진정 '전략적 선택'을 바꾸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제재 무용론을 재차 강조함.
- 북한 국제문제연구소의 오영란 부소장이라는 인물은 이날 발표한 '미국의 대조선(대북)제재는 패배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북한은 지난달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이후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겨냥해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보내고 있음.

2016. 12. 6.

■ **조셉 윤, 대북압박 기조 지속해야...중대협상은 6자회담 통해(연합뉴스)**

-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5일(현지시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대북압박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힘.
- 윤 특별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 공동 주최 '제1차 한미전략포럼'에서 압박-방위조치-외교적 노력 등 미 정부의 대북정책 3원칙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제재와 방어적 조치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다. 우리는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 약속과 더불어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대화에 기꺼이 응할 수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제안했다”고 설명함.

2016. 12. 7.

■ **北 “美, 대북정책 총파산을 인권공세로 만회하려 발악”(연합뉴스)**

- 북한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권공세로 만회하려 한다고 반발하며 ‘세계인권의날’(2월 10일)을 앞두고 공개질문장을 발표함.
- 북한에 있는 국제문제연구소는 공개질문장을 통해 “‘전략적 인내’ 정책에 허망한 기대를 품어온 오바마패가 오늘에 와서 대조선(대북)정책이 총파산된 양갚음을 극단적인 인권공세로 만회해보려고 최후의 발악을 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함.
- 연구소는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의 북한 인권 관련 발언과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점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힘.

■ **美 국방 “북한위협 심각·美해군 높은 작전속도 유지하겠다”(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의 작전속도가 가까운 장래에 완화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6일 내다봄.
- 미군 기관지 성조지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카터 장관은 한반도 등 북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 해군 7함대의 모항인 일본 가나가와 현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 ‘존 매케인’ 함을 순시한 후 연설에서 이렇게 예측함.
- 카터 장관은 “최근 아태 지역에서 미 해군은 매우 분주하고, 작전속도도 특히 높은 편”이라며 “예컨대 북한의 위협은 심각하며, 미국만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맞설 수 있는 전력 공급자”라고 강조함.

■ **“美하원, 대북 추가제재·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법안 가결”(연합뉴스)**

- 미국 하원이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미국 하원이 5일(현지시각) 표결 끝에 통과시킨 2017 회계연도 국무부 수권법안

(S.1635)은 북한이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의 안보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세계 곳곳에 숨겨진 북한의 금융자산을 제재대상에 올리도록 했다고 방송은 전함.

- 법안은 또 인권 침해와 관련한 제재 명단을 작성토록 했으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도록 촉구함.

2016. 12. 8.

■ 주일 美해군기지 사령관 “北핵위협 확대…항상 경계”(연합뉴스)

- 한국계 미국인 제프리 김 미해군 7함대 요코스카 기지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보면 핵·미사일 능력이 전보다 명백히 확대됐다”고 평가함.
- 김 사령관은 최근 일본 가나가와 현 요코스카 기지에서 외교부 공동취재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 해군은 (북한의 위협을) 항상 경계하고 있고 이에 대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김 사령관은 아울러 “개인적으로 한미일 3자 관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미·일, 한·미는 이미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고 있다. 한·일 협력은 확대되고 있으며, 더욱 협력하면 미국과 동맹국간 안보체제 강화와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함.

나. 북·중 관계

2016. 12. 4.

■ “中, 北 김정은 정권 붕괴 대비 난민시설 확보 본격화한 듯”(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나 전란 등 급변사태를 가정해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전함.
- 요미우리는 이날 선양 발 기사에서 북·중 국경 지역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난민 유입에 대비해 지린 성에서 식량 저장고나 수용시설 확보가 시작됐다는 정보가 있다”고 보도함.
-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4월께 지린 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열린 현지 지방정부 회의에서 자치주 간부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적어도 30만 명의 난민이 온다”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임.

2016. 12. 8.

■ 中 “안보리 결의 철저이행...각국 독자제재는 수용불가”(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철저한 이행을 다짐하면서도 한·미·일 등 각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요구받자 “중국은 일부 국가의 그 어떤 독자제재도 수용하거나 승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 이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각국이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양자 대북제재를 시행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 북·일 관계

2016. 12. 6.

■ 日제출 핵무기 폐기결의안 23년 연속 유엔서 채택돼(연합뉴스)

- 일본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핵무기 폐기 촉구 결의안이 23년 연속 채택됨.
-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된 결의안은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핵군축·비확산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결의안은 각국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음.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12. 3.

■ 北, 평양 주재 외교사절에 ‘안보리 제재’ 입장 설명(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이 지난 2일 평양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을 초청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한성렬 외무성 부상이 참석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에

대한 북한의 원칙적 입장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힘.

- 한 부상은 지난 1일 발표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유엔 사무국이 6개월이 지나도록 대조선(대북)제재 결의의 법률적 모순을 해명할 것을 요청한 유엔주재 조선(북한)대표의 편지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2016. 12. 4.

■ 北, ‘안보리 대북제재’ 지지 유럽국가 비난(연합뉴스)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지지하며 북한에 국제적 의무이행을 촉구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을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에서 “유엔헌장과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핵실험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이 없다”면서 이처럼 날을 세움.
- 대변인은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핵실험을 누구보다 많이 한 미국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먼저 제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5월 대북제재 결의의 ‘법률적 모순’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유엔 사무국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비판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12. 6.

■ 美8군사령관 “북한, 30~60일내 추가도발 가능성”(연합뉴스)

-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육군 중장)은 6일 “북한이 30일에서 60일 이내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음.
- 밴달 사령관은 이날 주요 언론사 간부들과의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조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도발했다”며 이같이 밝힘.
- 그는 “북한은 새로 출범하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초를 모르며, 도발을 통해 이를 확인하려 시도할 수 있다”면서 “한국도 정치적 전환기이기 때문에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임.

2016. 12. 9.

■ **“北, 핵미사일 발사능력 갖춰…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미완성”(연합뉴스)**

- 미국의 한 고위 국방관리는 8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췄으나,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완성하지 못했다고 밝힘.
- 익명의 이 관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언급했다고 AFP, AP 통신 등 주요 외신이 전함.
- 이 관리는 “솔직히 북한이 지금 당장 핵무기를 운반할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략적 타격을 위한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그것을 극복하려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2.4	한·미, 北 SLBM 대응능력 강화 모색...대잠전 워킹그룹 회의(연합뉴스)	
	12.5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13일 서울서 회동(연합뉴스)	
	12.6	한미중러 12월중 연쇄 고위회담...안보리 대북결의 후속조치 논의(연합뉴스)	
	12.7		브룩스 사령관 “동맹 어느때보다 중요...한·미간 틈 없다”(연합뉴스)
	12.9	“한·미·일, 16일 서울서 차관보급 방위 실무 협의”(연합뉴스)	美 차대통령 탄핵표결에 “한국 내부 문제...한·미관계 영향 없어”(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2.5	주중韓대사관, 중국 매체에 사드 설명회...신화통신 “적반하장”(연합뉴스)	
	12.6	중국 ‘사드보복’에 정부 속수무책...커지는 외교 공백(연합뉴스)	
	12.8		‘사드 반대’ 중국, 한국 야당의원들과는 적극 접촉(연합뉴스)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내일 베이징 회동...대북제재 협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2.5		후쿠다 전 日총리, 한중일 공조로 트럼프 리스크 대비해야(연합뉴스)
	12.9		日외무성 관계자 “자위대, 한국 요구 없이 한국 영역 진입안해”(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2.3	美 中에 “유엔 대북제재 제대로 이행 안하면 中기업 제재” 경고(연합뉴스)	
	12.6	키신저 ‘일촉즉발’ 미중관계 중재하나… 시진핑-트럼프 연쇄 접촉(연합뉴스)	
	12.8		中환구시보 “日·대만, 美에 ‘보호비’ 내고 있다” 비난(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12.5		아베, 이달 하순 하와이 방문… 現총리 최초 진주만 희생자 위령(연합뉴스)
	12.6		日관방 “아베, 전쟁 사죄하러 진주만 가는것 아니다”(연합뉴스)
	12.7	미·일 국방장관 회담…북핵·미사일 대응 공조 확인(연합뉴스)	
	12.9	미·일, 진주만 공습 희생자 첫 합동추도식…“새 미·일관계 시작”(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12.5		美·EU 이어 日도 中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통상압박 강화(연합뉴스)
	12.7	중 강제연행 피해자, 일 가지마건설 상대 소송 제기(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12.4	日 북방영토 협상에 공들이지만…러시아는 “인내심 가져야”(연합뉴스)	
			러 외무, 日외무에 사드 배치 따른 위협 경고(연합뉴스)
	12.8	러시아-日, 쿠릴 4개섬서 공동경제활동 협력 공동성명 검토(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12. 4.

■ 한·미, 北 SLBM 대응능력 강화 모색...대잠전 워킹그룹 회의(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의 해군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한 대잠수함전 능력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댔.
- 해군은 지난 1~2일 부산에서 브래드 쿠퍼 주한 미해군사령관과 김종일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부사령관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한미 대잠수함전 워킹그룹 회의'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 회의에는 한국과 미국의 대잠수함전 관련 17개 부대의 관계자들이 참석함.

2016. 12. 5.

■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13일 서울서 회동(연합뉴스)

-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는 13일 서울에서 회동한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 외교부는 이번 회동에서는 “북핵, 북한 문제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함.
- 이번 회동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과 연이은 한·미·일의 대북 독자제재 발표 이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음.

2016. 12. 6.

■ 한미중러 12월중 연쇄 고위회담...안보리 대북결의 후속조치 논의(연합뉴스)

- 정부가 이달 중 미국, 중국, 러시아 현지에서 연쇄 양자 고위급 회담을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보각료회의에 참석한 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 윤 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오바마 정부는 물론 트럼프 당선인 측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 한미 양국이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 12. 7.

■ 브룩스 사령관 “동맹 어느때보다 중요…한·미간 틈 없다”(연합뉴스)

-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7일 “시련(test)의 시기에,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 밤 싸운다’(fight tonight)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함.
-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주미 특파원 출신 언론인 모임인 사단법인 한·미클럽(회장 봉두완)이 한·미관계에 기여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한·미클럽상’을 받은 뒤 이같이 밝히면서 핵무기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둔 북한에 맞선 한미의 철저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조함.
-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브룩스 사령관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어떤 종류의 틈도 없다”며 “어느 누구도, 특히 북한은 (한·미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함.

2016. 12. 9.

■ “한·미·일, 16일 서울서 차관보급 방위 실무 협의”(연합뉴스)

- 한·미·일이 오는 16일 서울에서 차관보급 방위실무자 협의를 연다고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3국 관계자를 인용해 9일 보도함.
- 아사히는 “이번 협의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따라 새로운 협력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함.
- 신문은 논의 내용에 대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한 잠수함 훈련과 미사일 방어훈련(계획)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고 한다며” “한국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발견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함.

■ 美, 차대통령 탄핵표결에 “한국 내부 문제…한·미관계 영향 없어”(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직접적인 반응을 삼간 채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엘리자베스 트뤼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전

에도 말했듯이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트뤼도 대변인은 이번 사안이 북한 문제 또는 내주 열릴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 입장에는 변한 게 없다”고만 답변함.

나. 한·중 관계

2016. 12. 5.

■ 주중韓대사관, 중국 매체에 사드 설명회…신화통신 “적반하장”(연합뉴스)

- 주중 한국대사관이 중국 매체를 대상으로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오해를 풀기 위해 설명회를 열자 관영 신화통신이 적반하장격 변명이라고 비난하고 나섬.
- 5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2일 20여 명의 중국 기자들을 대사관에 초청해 2시간 동안 한·중 관계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사드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정당성을 설명함.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신화통신은 논평을 통해 박준용 공사가 한국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변명했다면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한국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지 않고 현혹하는 말을 했다고 비난함.

2016. 12. 6.

■ 중국 ‘사드보복’에 정부 속수무책…커지는 외교 공백(연합뉴스)

-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 사안의 성격상 최고위 지도자 사이의 신뢰 회복과 정치력 발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순실 사태에 따른 한국 정상외교의 공백은 아쉬움을 더 키움.
-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는 실정임. 세무조사의 경우 중국 당국이 ‘법집행’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논리가 마땅치 않고, 한류 규제 역시 정부 차원의 실효적 대응카드를 찾기 쉽지 않아 보임.

2016. 12. 8.

■ ‘사드 반대’ 중국, 한국 야당의원들과는 적극 접촉(연합뉴스)

- 한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공식채널 접촉에는 소극적인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 야당 의원들과의 접촉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중국 외교부는 류전민 부부장이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이인영 의원이 이끄는 한국 국회 대표단을 만나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7일 밝힘.
- 이번 대표단은 이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김영호, 정춘숙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됨.

■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내일 베이징 회동…대북제재 협의(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은 9일 베이징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 강화된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 방안을 협의함.
-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9일 베이징을 방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협의한다고 외교부가 8일 밝힘.
- 양측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내년 1월 20일) 전후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2321호)의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임.

다. 한·일 관계

2016. 12. 5.

■ 후쿠다 전 日총리, 한중일 공조로 트럼프 리스크 대비해야(연합뉴스)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일본 총리가 5일 미국 트럼프 정권의 출범 이후를 대비해 한국과 일본, 중국이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 후쿠다 전 총리는 일본 시즈오카(静岡)시에서 한중일 3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중일 현인(賢人)회담’의 기조강연에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세계 경제와 안전보장의 틀에 영향을 미쳐 세계가 불안정하게 될 리스크가 있다”며 “한중일이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 안정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트럼프씨의 당선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벗어난 것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도 예상하기 어렵다”며 “동아시아의 우리가 동요하거나 기가 꺾여서는 안된다”고 말함.

2016. 12. 9.

■ **日외무성 관계자 “자위대, 한국 요구없이 한국 영역 진입안해”(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의 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외무성 관계자는 지난 6일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한국 외교부 공동취재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진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활동에 대해 “요구를 받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가거나 제멋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함.
- 이 관계자는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한국내 일본인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된다면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무엇보다 한국의 요청을 받아야 하는 일이며,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준다는 것이 성립돼야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답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12. 3.

■ **美, 中에 “유엔 대북제재 제대로 이행 안하면 中기업 제재” 경고(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중국 당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할 수 있음을 경고함.
-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와 관련해 “중국이 새 제재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이를 어긴 채 사업적 거래를 계속하면서 북한의 거래금지 대상 기업을 돕거나 방조하는 것을 우리가 적발하면 ‘중국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중국 측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함.
- 이어 “만약 중국이 거절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우리 미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이때 고려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은 북한의 값싼 석탄을 이용하는 중국 철강기업을 제재하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2016. 12. 6.

■ **키신저 ‘일촉즉발’ 미중관계 중재하나…시진핑-트럼프 연쇄 접촉(연합뉴스)**

- 1970년대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 정상화에 큰 역할을 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방중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날 예정이다.
- 트럼프와 대만 차이잉원 총통 간 금기를 깬 전화통화로 미·중 관계가 더욱 경색된 상황에서 키신저가 양국의 중재자로 나설지 주목됨.
- 의회전문지 더힐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귀국한 키신저를 6일 만난다고 보도함. 키신저는 지난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만나 미·중 관계 현안을 논의했음.

2016. 12. 8

■ **中환구시보 “日·대만, 美에 ‘보호비’ 내고 있다” 비난(연합뉴스)**

- 중국 관영 언론매체가 일본과 대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호비’를 내고 있다고 비난함.
- 손 마사요시(한국명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사장이 미국에 500억 달러(58조5천500억원) 규모의 통 큰 투자 결정한 데 이어 대만 최대 재벌인 귀타이밍 홍하이 그룹 회장이 70억 달러(8조1천300억원)를 투자키로 한 것을 ‘보호비’로 빗대 표현한 것임.
- 8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백악관 주인이 바뀌기도 전에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우방들이 위협을 느껴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보호비’를 내고 있다면서 소프트뱅크와 홍하이의 투자의 배경에 정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과 대만 당국이 미국에 잘 보이려고 이런 투자를 결정했다고 해석함.

나. 미·일 관계

2016. 12. 5.

■ **아베, 이달 하순 하와이 방문·現총리 최초 진주만 희생자 위령(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6~27일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공습

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냈던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전쟁 희생자들을 위령할 예정임.

- 아베 총리는 5일 오후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문은 희생자 위령을 위한 것이다. 두번 다시는 전쟁의 참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현직 일본 총리가 희생자 위령을 위해 진주만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2016. 12. 6.

■ **日관방 “아베, 전쟁 사죄하러 진주만 가는것 아니다”(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이달 하순 미국 진주만 방문과 관련해 “(2차대전을 일으킨데 대한) 사죄를 위해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함.
-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은 전쟁 희생자의 위령(영혼을 위로함)을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이런 발언은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 행보가 미국의 진주만 공습 등 2차대전에 대한 일본의 가해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해석되면서 일본내 극우세력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따른 것으로 보임.

2016. 12. 7.

■ **미·일 국방장관 회담…북핵·미사일 대응 공조 확인(연합뉴스)**

- 일본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이나다 도모미 일본방위상은 7일 도쿄 방위성에서 회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공동 대응하기로 확인함.
- 두 사람은 또 북한에 대한 대응은 물론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 시도에 대해서도 미일동맹을 토대로 공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일동맹을 더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고, 애슈턴 장관은 “미·일동맹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답함.

2016. 12. 9.

■ **미·일, 진주만 공습 희생자 첫 합동추도식…“새 미·일관계 시작”(연합뉴스)**

- 태평양전쟁의 발단이 된 구 일본군의 미국 진주만 공습 75년을 맞아 8일(현지시간) 진주만에서는 사상 처음 미일 합동 추도식이 열림.

- 합동 추도식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습 이후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진주만의 애리조나기념관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도하기로 하며 양국 간 화해 무드가 고조되는 가운데 열림.
-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추도식은 호놀룰루 주재 일본총영사관 측이 미국 측에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짐.

다. 미·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중·일 관계

2016. 12. 5.

■ 美·EU 이어 日도 中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통상압박 강화(연합뉴스)

- 미국에 이어 일본 정부도 중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전함.
- 중국은 이에 반발해 WTO에 제소하는 등의 직접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어서 통상 마찰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임.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을 WTO의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중국에 경제 자유화 개혁을 촉구하기로 함.

2016. 12. 7.

■ 중 강제연행 피해자, 일 가지마건설 상대 소송 제기(연합뉴스)

- 2차대전 중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 27명이 일본 가지마(鹿島)건설(옛 가지마구미)을 상대로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6일 지방법원 격인 베이징시 제3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함.
- 중국에서 가지마건설을 상대로 강제연행 관련 소송이 제기되기는 처음임.
-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강제연행자 1인당 100만 위안(약 1억7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함.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2016. 12. 4.

■ 日 북방영토 협상에 공들이지만…러시아는 “인내심 가져야”(연합뉴스)

- 일본이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로 영유권 분쟁을 빚는 러시아와 오는 15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조정작업에 나섰지만, 러시아 측 반응이 기대에 못 미쳐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4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지난 2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친서를 전달함.
- 푸틴 대통령이 외국 정상에 아닌 각료와 만난 것은 이례적으로, 30여 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기시다 외무상은 영토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짐.

■ 러 외무, 日외무에 사드 배치 따른 위협 경고(연합뉴스)

- 러시아가 일본을 상대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비롯한 미국 글로벌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의 동북아 지역 배치를 경고하고 나섬.
-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모스크바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MD 시스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배치로 야기될 위협에 대해 일본의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힘.
- 라브로프는 “러-일 협력은 아태 지역의 안정과 안보 보장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지역 안보는 블록화가 아니라 대등하고 포괄적인 대화를 통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함.

2016. 12. 8.

■ 러시아-日, 쿠릴 4개섬서 공동경제활동 협력 공동성명 검토(연합뉴스)

- 러시아와 일본 정부가 영토 분쟁을 빚어온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 공동경제활동에 대한 협력 촉진을 이달 중순 발표할 공동성명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8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15~16일 일본에서 열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후 공동성명에 관련 내용을 포함토록

- 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 쿠릴 4개섬 진흥 계획 이외에 인적 교류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
짐.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2.3	“올해 탈북난민 17명 美 입국…2006년 이후 209명”(연합뉴스)
	12.6	김정은, ICC 회부해야…뉴욕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열려(연합뉴스)
	12.8	유엔 안보리, 3년연속 북한인권 정식안건으로 다룬다(연합뉴스)
	12.9	美워싱턴서 北인권탄압 모의국제재판…“김정은 마음대로 처형”(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북한인권 남한동향	12.6	북한인권재단 3개월째 출범 못해…내년 예산마저 깎여(연합뉴스)
	12.8	민주평통 “대북제재에도 北 취약계층 지원 계속해야”(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12.7	올해 1~11월 입국 탈북민 1천268명…작년대비 16.7% 증가(연합뉴스)
대북지원	12.3	유럽 NGO 3곳, 北 수재민에 4억원어치 구호물품 지원(연합뉴스)
	12.7	호주, 北 취약계층 식량지원금 220만 달러 기부(연합뉴스)
	12.9	FAO “北 식량부족국 재지정…올해 식량부족분 77% 미확보”(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12. 3.

■ “올해 탈북난민 17명 美 입국…2006년 이후 209명”(연합뉴스)

- 탈북자 6명이 난민 자격으로 지난달 미국에 입국하면서 올해 들어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총 17명으로 집계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난민 입국현황 자료를 통해 14세 미만 어린이 1명과 14~20세 1명, 30대 1명, 51~64세 1명 등 여성 4명과 30대와 40대 남성 각 1명 등 탈북자 6명이 지난달 미국에 입국했다며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209명으로 늘었다”고 밝힘.
- 지난달 미국에 입국한 6명 중 4명은 중서부 일리노이주 워튼에 정착했고, 나머지 2명은 서부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자리를 잡음.

2016. 12. 6.

■ 김정은, ICC 회부해야…뉴욕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열려(연합뉴스)

-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뉴욕에서 열림.
- 대한민국 뉴욕총영사관은 5일(현지시간) 뉴욕에 있는 존제이 크리미널저스티스 칼리지에서 ‘북한의 위기-안보와 인도주의적 차원’이라는 제목의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북한 인권문제 해결책을 모색함.
- 이 자리에는 김기환 총영사와 제레미 트레비스 존제이 칼리지 총장, 이정훈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등이 참가함.

2016. 12. 8

■ 유엔 안보리, 3년연속 북한인권 정식안건으로 다룬다(연합뉴스)

-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3년 연속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논의될 전망이다.
- 7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안보리는 오는 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성토했다는 회의를 열 계획임.
- 북한의 최대 우방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올해에도 반대하며 안건 채택 여부를 놓고 절차투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2016. 12. 9.

■ **美워싱턴서 北인권탄압 모의국제재판…“김정은 마음대로 처형”(연합뉴스)**

-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탄압 상황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짐.
- 8일(현지시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모의재판에 참석한 탈북자들은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북한 전역에서 외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인권탄압이 일상화돼 있으며,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마음대로 처형이 자행돼왔고, 또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함.
- 탈북자 출신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자신의 ‘요덕 수용소’ 강제수용 경험 을 중심으로 북한 정권에서 운영하는 참혹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을 재판부와 변호인단에게 진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 **특이사항 없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12. 6.

■ **북한인권재단 3개월째 출범 못해…내년 예산마저 꺾여(연합뉴스)**

-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나 지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 지연으 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음.
- 게다가 국회의 2017년 통일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북한인권재단 예산이 삭감돼 출범 이후 활동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재단의 민간단체(NGO) 지원 예산이 12억5천만원이 나 삭감됐다”며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NGO를 지원하는 재단의 활동에 차질을 우려함.

2016. 12. 8.

■ **민주평통 “대북제재에도 北 취약계층 지원 계속해야”(연합뉴스)**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북제재 국면에도 영유아 등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정책건의안’을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

- 전날 오후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2016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채택된 정책건의안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한 것이 핵심임.
- 민주평통이 제시한 추진과제는 지속 가능한 통일준비 체계 제도화, 탈북민 정착 지원정책의 효율적 이행,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법 제시, 북한 인권문제 해결과 인도적 지원 원칙 확립, 대북제재 관련 국제공조 지속 강화, 통일준비를 위한 주변국 발전 전략과의 연계, 국론결집을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 강화 등임.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12. 7.

■ 올해 1~11월 입국 탈북민 1천268명…작년대비 16.7% 증가(연합뉴스)

- 올해 들어 국내 입국하는 탈북민이 크게 늘어 연간 1천4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7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1천26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7% 늘어남.
- 지난달 말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3만62명임.

5. 대북지원

2016. 12. 3.

■ 유럽 NGO 3곳, 北 수재민에 4억원어치 구호물품 지원(연합뉴스)

- 유럽의 비정부기구(NGO) 3곳이 함경북도 수재민들에게 총 32만달러(약 3억 8천만 원) 어치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함.
- VOA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를 인용해 아일랜드 비정부기구 컨선월드와이드가 16만달러, 독일 민간구호단체 벨트홍게르힐페가 8만달러,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8만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각각 지원했다고 전함.
- 한편, 유엔은 수재민 1만1천928가구를 위한 새집 공사가 끝나 입주를 마쳤으며, 1만7천700여 채의 보수공사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고 VOA는 덧붙였다.

2016. 12. 7.

■ 호주, 北 취약계층 식량지원금 220만 달러 기부(연합뉴스)

- 호주 정부가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지원 기금으로 220만 달러(25억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함.
- 호주 국제개발청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2017회계연도의 대북지원금이라며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게 우유 분말과 두유를 공급한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 호주 국제개발청 관계자는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제공한 대북지원금이 총 9천만 달러(1천54억원)에 이른다며 호주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논란이 불거진 2002년부터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중단하고 대신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벌이고 있다고 말함.

2016. 12. 9.

■ FAO “北 식량부족국 재지정…올해 식량부족분 77% 미확보”(연합뉴스)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올해 식량 부족분 가운데 무려 77%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을 지난해에 이어 '식량부족 국가'로 재지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함.
- FAO는 전날 공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이라는 제목의 올해 4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식량부족 국가로 지정했다고 밝힘.
-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69만4천t에 이르지만, 지난 10월 기준으로 23%가량인 16만3천t을 확보하는데 그쳤다”고 말함.